

신창동 '마한 유적지' 고속도로 확장에 훼손 위기

문화재청, 확장 심의 조건부 승인
11.2km 구간 왕복 4차선→6차선
학계 반발...“우회 방안 모색해야”
마한사 공들인 광주시 대응 미흡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375호)인 광주 신창동 마한 유적지가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구간 확장 공사로 훼손 위기에 처했다.

지역 역사학계는 반발하며 ‘고속도로 우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화재청의 조건부 승인 등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음에도 정작 ‘지역 마한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광주시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광주시,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구간 확장사업이 올해 본격화될 전망이다. 동광주 나들목-광산 나들목 11.2km 구간 왕복 4차선을 왕복 6~8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당초 사업비 4031억원에서 3041억원이 증액된 7072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른바 하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가며, 준공은 오는 2028년 하반기로 전망된다.

하지만 동광주-광산 구간 확장 공사로

위해서는 신창동 유적지 훼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속도로 확장 공사에 포함된 신창동 마한유적지는 총 1.85km 구간으로 확장 폭은 ‘25.9m→35.55m’로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된다.

신창동 유적지 내 확장공사를 위한 문화재청의 심의도 이미 ‘조건부 가결’이 이뤄진 상황이다.

문화재청 심의 분과위원회는 지난 2021년 3월 △유적지 동쪽 방향 확장 △유적지 경관 회복 위한 터널(길이 20m) 강구 등의 조건을 걸고 출석위원 13명 전원이 조건부 가결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2020년 3차례 심의에서는 부결·보류한 바 있다.

광주 신창동 유적은 세계 최대의 벼 생산 유적을 비롯해 각종 칠기와 현악기, 신발을 만드는 틀인 신발 굴, 수레바퀴 등 선사시대 유적 2만여점이 발굴됐다. 유적지 면적은 26만715㎡에 달한다.

신창동은 선사 유적이라는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유적지를 관통하는 호남고속도로, 광주-장성간 국도로 훼손이 심각하다. 전체 유적지의 30% 가량만 발굴조사가 이뤄져 추가 발굴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창동 유적지 훼손이 불가피한 고속도로 확장 공사가 추진되면 서 지역 역사학계는 반발하며, ‘고속도로

국민의힘-호남권(광주·전북·전남) 예산정책협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광영 전북지사 등이 14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관련기사 2면 나건호 기자

우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임영진마한연구원장은 “신창동 유적은 기존 고속도로와 광주-장성간 국도가 나란히 관통하면서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이다”며 “더 이상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확장공사를 계기로 유적지를 우회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에서는 유적지 훼손을 막기 위한 우회도로가 추진된 바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광주-강진 간 고속

도로 건설현장 나주 구간에서 발견된 ‘고대 무덤’을 현지 보존하는 쪽으로 잠정 결정, 고속도로 선형을 최장 2.3km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문화재청이 이미 2년 전 조건부 가결을 한 상황인데도 광주시는 신창동 유적지 훼손 우려에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학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그동안 광주시가 마한사에 얼마나 무관심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신창동 유

적지를 지키지, 고속도로 확장을 지켜보지 않는 광주시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광주시 도로과 관계자는 “문화재청과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신창동 유적지로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는 만큼, 확장에 따른 훼손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광주시 문화기반과는 유적지 훼손 여부에 대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수 기자 seongsu.kim@jnilbo.com

“테마형 시티투어버스 타고 광주 관광”

광주시·광주관광재단 정기노선
3개 코스 매주 토·일요일 운행

광주시와 광주관광재단이 테마형 시티투어버스(사진) 정기노선을 출시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본격 운행하는 테마형 시티투어버스는 쉬어브로(자연힐링+미식)·즐거브로(미식

+MZ니즈결합)·느껴브로(가족+전시) 등 3코스로 구성됐다. 매주 토·일요일 운행한다.

자연힐링과 미식을 주제로 한 쉬어브로는 증심사와 포충사·공영마루를 잇는 코스로, 힐링가든휴에서 족욕체험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함을 더했다.

즐거브로는 미식과 MZ세대 수요를 결

합해 만든 코스다. 양림동 골목투어와 동명동 꿈브루어리에서 양조장 체험을 한 뒤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지맵(GMAP), 남도달밭야시장(미 운영때는 뷰폴리)을 도는 코스다.

가족과 전시를 함께하는 느껴브로는 고려문화관 ‘결’에서 미트로시가 쿠키 만들기 체험하고,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지맵·전일빌딩·뷰폴리로 채워졌다.

올해 시티투어버스는 화려한 색채와 창문을 활용한 트릭아트 디자인을 접목시켜 입체적이고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해 타

는 사람과 보는 사람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한다. 테마형 시티투어는 트릭아트에 지역 체육선수(양궁 안산·육상 김국영·육상 강다슬)가 달리는 모습을 덧입혀 함께 달리고 싶은 역동적인 모습을 더했다.

광주시김성배관광도시과장은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했다”며 “광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움직이는 하나의 예술작품을 타고 여행하며 광주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 seongsu.kim@jnilbo.com

다시 시작하세요! 국가가 함께 지원합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납부재개시 월 최대 45,000원 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납부예외사유가 실직·사업중단·휴직인 경우

지원금액 월 보험료의 50% (최대 월 4만 5천 원 지원)

지원기간 생애 최대 12개월

제외대상 재산세과세표준 6억 원 이상, 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
*종합소득은 사업·근로 소득 제외금액



이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www.nps.or.kr 고객센터 | 국번없이 1355(유료)

자세히 알아보기

